



외교·안보 난관… 다시 시험대 오른 文정부

일본,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같은날 북 방사로 시험 자격
문대통령 “전적으로 日 책임
… 역경을 도약하는 기회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북의 추가 도발도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은 두번째 수출 제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개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국내에 미사용되다가 일본 내에 생산되지 않는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대신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 동안 제주의 지인의 집에 머물러 국정 구상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국무회의를 열어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과거에

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일련의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요원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와 함께 어려운 난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세기 이상 발전해 온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또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신행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31일에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달 초 한미 연합연습 시행 등에 따른 반발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도,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이·통·반장 해임통보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동 직원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읍면동 관계자 회의, 행정시 리통장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반영하게 됐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다.

사무장 1인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30만원)를,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5~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10월말까지 이뤄지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질병 예방을 위

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 시설 등이다.

소프트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태윤기자



지난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율방재단 양성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해양경찰 권한 강화… ‘해양경찰법’ 국회 통과

오영훈 국회의원 제정안
“잃었던 신뢰, 다시 회복”

대한민국 해양치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사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5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새롭게 거듭났는데,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

로 대응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법 제정이 추진됐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제주도 가스 판매사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본부와 함께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수련·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재난 취약시설 2100곳에 대해 진행되며, 지난 상반기 점검 결과 총 1326곳(전기 439·가스 887)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재난현장 전문가로 한발”

서귀포자율방재단 100여명
지역자율방재사 자격 취득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태영)은 지난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자율방재단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단원 100여명이 자율방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사)방재문화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재난

유형별 법령이해 ▷긴급구조와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과정 중 실제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대치하는 실습을 통해 비상식량을 취식하는 방법과 요령을 익혀 재난발생 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태영 단장은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시 전문적인 영역에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재난현장 어디든 자율방재단이 늘 함께해 서귀포시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9.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UQ) 신청 접수 및 심사계획 공고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UQ)」의 '19. 3분기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19. 7. 29(월) ~ 8. 12(월) 18:00시까지
- 신청대상자 : 제주산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신청대상품목 : 농·수산물, 수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기타가공식품, 공산품 중 전문가관 등의 품질인증이 완료되고 현재 출시된 제품
- ※ 품목별 심사기준과 제주산원료 허용기준은 「19. 3분기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UQ) 신청 접수 및 심사계획 공고」를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E-MAIL, 신청 후 우편을 통한 신청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JQ홈페이지(www.jq.or.kr) → 공지사항 「19. 3분기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UQ) 신청 접수 및 심사계획 공고」를 참고하세요
- 접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6층 마케팅본부 기업지원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 연락처 : 064-805-3373, 064-805-3384
- E-MAIL : 741974@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예비검속 첫알오름 희생자 영령 제69주기 합동위령제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칠월칠석 날,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예비검속 첫알오름 희생자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69주기 합동위령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19년 8월 7일(음7월 7일) 수요일 10:00

○장 소 : 백조일손유족 묘역 (대정읍 상모리 586-1)

※연락처 : 백 조 일 손 유 족 회 장 고영우 H.P010-2696-5073

첫알오름사건 행복유족회장 송태희 H.P010-2693-3969

백 조 일 손 유 족 회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 아우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 회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 아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8월 1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남원1리복지회관

■ 주최 :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 ■ 경기종목 : 율놀이

◎ 1부 행사 : 머채왕 숯길 걷기 (08시부터)

◎ 2부 행사 : 남원1리복지회관 (11시부터)

2019년도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 임원명단

회 장 : 정근부(46회)

직 전 회 장 : 양덕부(45회)

수석회장 : 오영익(47회)

부 회 장 : 방우만(48회) 강용범(49회) 정호만(50회) 이성복(53회) 김유영(54회) 현재철(56회) 송관성(57회) 오정용(59회)

여성부회장 : 김창자(53회)

감 사 : 이명준(49회) 현승용(59회)

사무국장 : 현진규(60회)

총무이사 : 강필환(61회), 기획이사 : 현진수(60회)

재무이사 : 현재휘(64회), 홍보이사 : 현용하(62회)

운영이사 : 오승환(65회), 체육이사 : 양한수(65회)

연락처 총동문화장 정근부(46회) 010-3696-0993

사무국장 현진규(60회) 010-9963-4347

남원초등학교 총동문화장 정 근 부

월세 타세요, 전세 타세요?

★나는 전세 car 탄다!★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터크의 사외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매월 관리비와 기동값으로 월임금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장비서비스는 옵션비없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입차 장차용 가능...

정비 보험 안전성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고 판매량 1위 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